

'네이마르 결장' 브라질, 모로코와 1-1 비겨…스코틀랜드는 승전고(종합)

등록 2026.06.14 12:37:34 | 수정 2026.06.14 12:42:24



[뉴욕=AP/뉴스시스]브라질 비니시우스, 모로코전 동점골. 2026.06.13.

[과달라하라(멕시코)=뉴스시스]안경남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 브라질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판에서 '아프리카 강호' 모로코와 승부를 내지 못했다.

브라질은 14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의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치른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겼다.

이로써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며, 아이티를 꺾은 스코틀랜드(승점 3)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브라질은 랭킹 6위고, 모로코는 7위다.

2002 한일 대회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도전하는 브라질은 첫 경기 승리를 놓치며 무겁게 발을 내디뎠다.

삼바군단을 지휘하는 세계적인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지도자로서 월드컵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대회 전 종아리 부상으로 회복 중인 브라질 에이스 네이마르는 이날 결장했다.



[뉴욕=AP/뉴시스]모로코, 브라질 상대로 선제골. 2026.06.13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쓴 모로코는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또 한번 이변을 예고했다.

모로코가 선제골로 균형을 깬다.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브라질 수비를 노린 모로코는 전반 21분 라힘 디아즈의 기막힌 패스를 브이스마엘 사이바라가 잡아 골키퍼 키를 넘기는 오른발 슈트로 득점에 성공했다.

브라질은 전반 32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왼쪽 지역을 돌파해 오른발 강슛으로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후 추가골을 노린 브라질은 모로코 수문장 야신 부누 골키퍼 선방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뉴욕=AP/뉴스시스]모로코, 브라질 상대로 선제골. 2026.06.13.

브라질은 후반에 파비뉴, 다닐루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하지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후반 15분에는 마테우스 쿠냐까지 내보냈다.

브라질 골 운은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후반 32분과 37분에는 하피냐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모로코도 역습으로 결승골을 노렸지만, 브라질 알리송 골키퍼를 더는 넘지 못했다.

같은 조의 스코틀랜드는 미국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치른 아이티와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승점 3점을 챙긴 스코틀랜드는 조 선두에 올랐다.



[보스턴=AP/뉴스시스]스코틀랜드, 월드컵서 아이티에 1-0 승리. 2026.06.13.

1990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스코틀랜드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 2차전 스웨덴전(2-1 승) 이후 36년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1972년 서독 대회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은 아이티는 첫 경기에서 패배를 맛봤다.

승부는 전반 28분에 갈렸다.

체 애덤스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흐르자 존 맥킨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31세 238일의 나이인 맥킨은 이날 득점으로 1982년 스페인 대회 케니 달글리시(31세 103일)를 제치고 스코틀랜드 대표팀 최고령 득점자가 됐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